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16, 성화, 2부, 역사적 정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성화, 2부, 역사적 정찰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고, 선물을 주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남자와 여자에게서 기독교 생활에 관해 배울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적 정찰로서, 성화에 대한 성경적 공식화와 체계적 공식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 생활에 대한 다섯 가지 다른 관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차이점을 부당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루터교와 웨슬리안의 견해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케스워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열리는 케스워 대회는 1875년부터 영국 북부 케스워에서 열렸습니다. 이러한 대회에서 케스워 신학이라고 알려진 성화에 대한 특정 견해가 생겨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더 높은 삶의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이 신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웨슬리안 교사들은 존 웨슬리 자신, 존 윌리엄 플레처, 애덤 클라크 등 웨슬리안을 포함한 초기 컨퍼런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케스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와 에이미 카마이클, 신앙 작가 오스월드 챔버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있습니다. 2005년 스티븐 바라바스는 이 운동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주요 자료인 So Great Salvation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부제인 The History and Message of the Keswick Convention이라고 불립니다.

케스윅 신학의 독특함을 언급하기 전에, 그 중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 생활에 관한 많은 공통된 복음적 강조점을 공유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개인적 거룩함을 강조하고 선교에 대한 열의를 증진합니다. 그것은 성화의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믿음에 의한 의롭게 됨을 높입니다.

그것은 정당화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위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케스윅의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당화와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핵심 위기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보통 다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칭의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혁자들이 가르쳤듯이요. 성화는 칭의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케스윅 신학은 성령과의 이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축복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과 믿음을 통해 정당화에서 성화, 두 번째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결실이 없습니다. 유명한 슬로건을 반복하자면, 의롭게 된 신자들은 인용하고,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화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통해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고요주의, 즉 영성의 열쇠가 인간의 무활동과 수동성이라는 견해처럼 보입니다. 비평가들은 케스웁의 가르침이 신자들이 죄와 싸우는 것을 막고 대신 성령이 죄를 처리하도록 신뢰한다고 비난합니다. 케스웁 신학은 우리가 말했듯이 믿음으로 칭의와 성화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성화를 구함으로써 성화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심할 때 성령을 받지만, 결정의 위기에 처해야 하며, 믿음으로 성령이 성화의 더 높은 삶에 들어가도록 신뢰해야 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화의 사역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생에서 죄 없는 완전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다음 생에서만 일어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성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케스웁의 성화 관점을 옹호하는 J. 로버트슨 맥퀼켄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것으로 비난하고, 죄를 극복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종종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그의 해독제는 따옴표 안에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즉 케스웁의 성화 이해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컬럼비아 성경 대학과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고, 아내가 심각한 치매에 걸려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간병인이 된 것으로 유명한 J. 로버트슨 맥퀼켄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명예로운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은혜로 충실한 남편이 될 것이고, 학교를 위해 주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칭찬할 만한 삶,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웁 신학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J. 로버트슨 맥퀼켄을 인용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배은망덕함과 무관심, 심지어 적대감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특징으로 하며, 불행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이 잘못될 때는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꾸준히 따르며, 자제력, 만족, 겸손, 용기가 자랍니다. 사고 과정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성경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행동을 진정으로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다른 사람의 복지는 개인적인 욕망보다 우선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Zondervan 1996의 *Five Views of Sanctification*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섯 가지 견해 중 하나는 케이스웁 신학입니다, 151쪽. 오순절과 개혁파의 견해를 다룬 후에 이것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순절적 견해.

오순절주의는 20세기 초 캔자스주 토피카의 찰스 파람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스트리트의 윌리엄 세이무어의 사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순절주의를 이해하려면 성령의 세 가지 물결, 즉 소위 세 가지 물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위에서 설명한 고전적 오순절주의로, 하나님의 집회와 같은 새로운 교파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주요 개신교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미친 카리스마 운동입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인 카리스마타를 강조하여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권능 복음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결, 오순절주의, 하나님의 집회. 두 번째 물결은 60년대와 70년대의 카리스마 운동. 세 번째 물결, 표적과 기사, 풀러 신학교, 능력 복음주의.

하나님의 집회의 존경받는 오순절파 지도자인 바이런 D. 클라우스는 고전적 오순절주의의 특징적인 다섯 가지 주제를 공유합니다. 그는 제가 다른 두 형제인 토니 슈트와 크리스 모건과 공동 편집한 책인 Why We Belong, Evangelical Unity and Denominal Diversity에 기여했는데, 여섯 가지 전통의 형제들이 첫째,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공유했습니다. 둘째, 루터교도, 개혁신교도인, 침례교도, 오순절교도, 감리교도 또는 성공회 신자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브레이 장군이 공유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게 회고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당시 캔자스 시티에 있는 Assemblies of God Seminary의 총장이었던 Byron D. Claus는 기독교 생활에 대한 오순절적 관점을 썼습니다.

다음은 그의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주제에는 정당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성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신성한 치유,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세례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 마지막을 오순절 신학의 특징적인 특징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의 두 번째 축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웨슬리안의 완전 성화에 대한 두 번째 축복 신학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안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관한 것이고, 오순절의 두 번째 축복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함 오순절교도들은 세 단계의 구원론을 고수하지만, 저는 그것을 개혁적 개신교의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칭의, 오순절의 두 번째

축복, 웨슬리안의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칭의 에 뒤 따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에 웨슬리안의 완전 성화를 더하지 않는 고전적 오순절주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기독교 생활에 대한 고전적 오순절주의 관점은 성령 세례가 정당화 또는 거듭남으로 여겨지는 초기 구원과 구별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공적인 기독교 생활과 봉사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전적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력한 기독교인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힘에 두드리는 기독교인으로 만듭니다. 거듭남은 구원에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주의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은 또 다른 복음입니다. 하지만 고전적 오순절주의의 하나님의 집회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영의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고전적 오순절주의가 두 번째 축복이 영의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 즉 글로슬라리아로 말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의 회심 후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는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하면서 서명된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중단주의 와 대조적으로 영적 은사의 지속주의 를 고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reg Allison은 그의 역사 신학 책과 온라인에서도 Gospel Coalition 웹사이트의 에세이에서 지속주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용문에서 이 입장은 성령이 신약에 카리스마타로 나열된 모든 영적 은사를 교회에 계속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소위 표적 또는 기적의 은사, 지식의 말씀

, 지혜의 말씀, 예언, 기적, 치유, 방언, 방언 통역이 포함됩니다. 일부는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는 악령 퇴치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오순절 대표이자 경건한 사람인 바이런 클로스는 오순절주의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알려주고, 세계관 구성에 중요한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을 인용하자면, 신성한 주도권은 이상적인 범주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주의에 강력한 현실입니다. 근대성을 상징하는 신성-세속적 이분법은 거부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이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확언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의 교회를 통해 그의 강력한 현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현실적 구성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인용문 닫기. 오순절의 권능과 봉사를 위한 영의 세례 교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조와 결합되어 세계 선교에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오순절과 카리스마적 기독교인은 로마 가톨릭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독교 집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단체입니다.

인용문: 202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힘을 받은 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은 6억 4,400만 명이었습니다. 즉, 오순절파와 카리스마파를 의미하며, 전 세계 기독교인의 26%를 차지합니다. 사실, 이것은 웹사이트 [www.gordonconwell.edu Research slash global Pentecostalism](http://www.gordonconwell.edu/Research/slash/global/Pentecostalism)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22년 4월에 액세스했습니다. 루터교, 웨슬리안, 케스워, 오순절파의 기독교 생활 관점.

기독교 생활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 16세기 종교 개혁은 복음, 교리, 예배와 노래, 교회, 설교와 성례, 성경 번역, 기독교 생활의 성경적 부흥을 촉발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그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개혁파는 루터교와 성공회보다 교리와 교회 생활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재세례파 운동만큼은 아닙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다른 성화 관점과 마찬가지로, 존 칼빈과 그의 신학적 상속자들은 칭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고수했습니다.

정당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을 그의 아들 또는 딸로 받아들이십니다. 개혁된 성화 관점은 이전의 네 가지 관점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삼위일체, 죄,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구원, 성령, 교회, 그리고 최후의 것들에 대한 교리를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simulustus et picator* 로,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여겨지고, 의로우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루터의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루터교적 구분을 인정하지만, 그와 그의 상속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성경의 해석적 열쇠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의 성경적 스토리라인을 추적하고 아브라함과 새 언약에서 구약성서 사이의 주요 구원론적 통일성을 봅니다. 개혁주의 관점은 웨슬리안과 오순절의 두 번째 축복 관점과 결별합니다. 그것은 웨슬리안의 기독교적 완전성을 거부하고 대신 평생의 점진적 성화를 고수합니다.

또한 성령의 개종 후 세례에 대한 오순절주의적 관점을 거부합니다. 대신, 개종 시 모든 신자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케스웁의 강조점은 인정하지만, 포기한다는 개념은 거부합니다.

대신,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큰 에너지를 쏟으라고 촉구하는 성경을 가리킨다. 로마서 8:13,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빌립보서 3:12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것을 얻었거나 이미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전 구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콜로새서 1:29,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존재로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수고합니다. 강한 단어입니다, *kopiaō*.

그것은 당신의 일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모든 에너지와 씨름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의 신뢰는 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고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 일해야 합니다. 개혁된 성화 교리는 확정적 또는 초기 성화, 점진적 또는 평생 성화, 최종적 성화를 구별합니다. 체계적인 공식화에 도달하면 바로 모퉁이를 돌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사람들을 확정적인 성화로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들을 완전한 거룩함으로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그는 그들이 현재에 점진적인 성화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생활 교리를 말할 때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기독교 생활에 대한 개혁된 관점의 기초입니다. 칼빈은 매일 성경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에서 강의했습니다.

슬라 그라티아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두 단어, 즉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에 근거한 슬로건 이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학과 윤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개혁된 구원론은 삼위일체론적이며, 아버지의 선택에서의 역할, 아들의 피에 의한 구속에서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성령의 구원 적용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저는 개혁되었고, 이 강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뜻대로 다른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싶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저에게 중요하지만, 저는 사과 없이 개혁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혁된 성화 관점의 천재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은 지금 그와 함께 고난을 겪고 나중에 그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을 수반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영의 역할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앤서니 호케마가 그의 책에서 가르쳐 주었듯이, 구원의 적용에 대한 책인 *Saved by Grace*를 포함하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지만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새롭지만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거룩함을 요구할 때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라고 말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은 아니고, 일관되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냅샷과 영화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성경의 영웅과 여걸들의 스냅샷을 찍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장의 사진. 이건 간통이고, 이건 대리 살인이예요.

아니면 초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길들여야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세 장의 스냅샷. 찰칵, 찰칵, 찰칵. 예수를 부인함.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영화처럼 본다면, 사실, 그의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찾았으며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는 사울의 삶과 다윗에 대한 살인 의도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울을 여러 번 다윗의 손에 넘겨 주셨고, 그는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만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주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함께 주셨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대조를 몇 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신자조차도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리고 큰 은사, 능력,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서에 대한 두 명의 절대적인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인가요? 그는 분명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 세 장의 스냅샷으로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의 옹호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는 주요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 옆에 유다를 주십니다.

피터의 삶은 우리에게 재밌는 방식으로 피터의 삶을 보여주는데, 데이비드가 우리를 격려하듯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유다는 사울과 비슷해 보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다른 열한 제자를 속였어. 농담이야? 둘씩 나갔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읽었어, 오, 아니, 나는 유다 편이야, 이걸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낭비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주머니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돈주머니에서 흠치곤 했습니다.

불완전 동사, 삶의 패턴을 보여줌.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들이 때로는 큰 방식으로 엉망진창을 만든다고 말함. 유다는 배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배교는 한때 공언했던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지만, 유다의 경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저에게 큰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막소사, 그는 예수에게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5천 명을 먹인 후 빵과 생선을 모았고, 산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 나는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주인을 배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지만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되었다(로마서 6장). 성경 스토리라인과 일치하게, 개혁된 성화 관점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타락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인 *imago Dei*의 점진적인 회복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순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으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말씀의 전파, 성례의 집행, 주님의 만찬에서의 세례, 그리고 기도.

견해를 평가할 때, 물론 저는 편파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뜻대로, 저는 광범위하게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모든 것에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에서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 다섯 가지 관점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인데,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대조하는 것은 그들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왜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 안의 동료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된 기독교 생활의 다섯 가지 관점이 신, 죄, 구원, 성령, 교회, 최후의 것들에 대한 교리에서 정통하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점 간의 차이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 신앙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고백으로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생활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질적이다.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루터의 복음 재발견에 빛을 쬐지만, 점진적 성화를 적절히 긍정하려는 그의 주저함은 그의 신학적 태도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섹션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ETS 컨퍼런스에서 저는 유명한 루터교 신학자 데이비드 P. 스케어가 "기독교 생활에는 진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느낌표, 닫기 인용문. 우리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18 , 에베소서 4:15, 4:20-24, 골로새서 1:9-10, 디모데전서 4:12-15, 히브리서 6:1, 베드로전서 2:2, 베드로후서 1:5-8, 요한1서 2:3-6, 요한1서 3:4-6, 요한1서 3:14-18을 지적해 보세요.

메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18, 에베소서 4:15, 20-24절. 골로새서 1:9-10, 디모데전서 4:12-15, 히브리서 6:1. 초보적인 것에서 나아가 자라가자고 저자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2, 베드로후서 1:5-8, 요한1서 2:3-6, 요한1서 3:4-6, 요한1서 3:14-18. 우리는 루터와 칼빈이 자유의 칭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루터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는 율법 복음의 구별을 인정합니다. 특히 바울에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터교인들처럼 그것을 성경 해석의 열쇠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루터가 그리스도인을 *simul justus et peccator*,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면서도 실제로는 죄인이라고 묘사한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또한 성장을 포함합니다. 우리 주이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18과 이전 문단에서 인용한 구절들은 다행히 다시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의 삶과 사역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전에 왜 내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아닌지에 대한 책을 언급했습니다.

제 동료 마이클 윌리엄스의 일은 아르미니우스의 삶과 저술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웨슬리의 삶과 저술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는 이 형제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복음을 위한 얼마나 용기인가. 오, 세상에.

존 웨슬리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했는데,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교회에서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디든 가져갔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한 권의 책에 따르면 그는 부엌에서, 거실에서, 어디에서나, 오지에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고, 체구가 작았으며, 큰 남자에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헛간에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알겠어요? 헛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 중 한 명을 초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날 무렵,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작은 사람아. 그 무리가 당신에게 신체적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 어깨 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멀리 달려가겠습니다.

그들은 그랬다. 그는 그랬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리에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웨슬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그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그의 결혼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아내보다 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수천 개의 찬송가를 쓴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그의 동생 찰스와 함께, 나는 지금 불쾌한 반 칼빈주의적인 것들을 간과합니다. 다행히도, 어떤 찬송가 책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회에 얼마나 큰 선물이었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영국에 부흥을 가져왔고, 영국은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존 웨슬리의 삶과 사역에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많은 생각에 동의하는데, 여기에는 성화가 그를 따르는 대다수 전통에 반하는 과정이며, 그의 제자 아담 클라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성화를 거부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나 완전한 성화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2-23. 우리는 그것을 소원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서신 장르의 하위 장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욕망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지켜지기를 구하노라. 다음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23-24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는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열망, 웨슬리안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존경하며, 우리가 종종 내가 거룩하듯이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레위기 11:44-45. 베드로전서 1-16에서 인용. 그러나 우리는 이생에서 온전한 성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토록 큰 사랑 때문에 알려진 법을 의식적으로 어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신중한 웨슬리안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케스웁은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라는 독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역에서 기본적인 복음주의 신학적 개요를 따릅니다. 경건한 교사들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으로, 우리는 이 두 번째 축복 교리를 비성경적이라고 거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놓아주고 하나님을 맡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케스웁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고요함으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활동주의로 부릅니다.

우리는 군인, 운동선수, 농부보다 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모델을 거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울이 베드로후서 2:4-6에서 호소하는 직업과 정확히 같습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베드로후서 2:4-6. 그들은 놓아주고 신을 맡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은 신을 신뢰하지만, 군인, 운동, 농사일을 매우 열심히 합니다. 정원이 있나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일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는데, 세상에, 이 모든 잡초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오순절 형제 자매들의 삶과 사역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 인해 그들의 두 번째 축복 교리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 마비된 오순절 청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회에서 보여준 고전적인 오순절주의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서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몇몇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낀 것입니다. 한 남자는 내 친구 중 몇몇이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영적 환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두 번째 축복의 권능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모두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13. 그리고 같은 장에서 나중에, "모두가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모두 방언으로 말하는가? 모두 통역하는가?"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사용된 부사, 부정 부사, 부정 불변화사는 부정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리스어로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모두가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포함하여 어떤 영적 은사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교회 회원들이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Anthony Ho ekema가 우리가 논의한 일부 문제에 대해 내린 처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oekema는 *ordo salutis*, 즉 구원의 순서에 대한 전통적이고 개혁된 이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구원, 거듭남, 부르심, 회심, 칭의, 입양, 성화, 인내의 적용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논리적 순서"로 배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존 프레임은 목록의 다른 의미의 질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생은 나머지에 대한 인과적 질서에 있지만, 믿음은 정당화와 입양의 수단 또는 도구이지 그들의 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순서는 실제로 *ordo salutis* 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화는 초기, 점진적, 최종적입니다.

구원의 순서 목록에서 어떻게 한 곳에 넣을 수 있나요? 세 곳에 넣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섞여 버립니다. 구원의 적용

요소를 연속적으로 보는 대신, 그는 인용문에서, 우리는 연속적인 단계나 단계로 구원의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 즉 우리가 다양한 측면을 구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더욱이 구원의 적용의 이러한 측면들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에서 통일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연합의 하위 집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의 아들과 합치실 때, 그는 그들에게 구원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와 삶을 믿을 때 연합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거듭나고, 의롭다고 선언받고, 입양되고,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평생 성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로 그들을 지켜 주십니다.

이 논의는 웨슬리안주의, 케스웁 신학, 오순절주의의 두 번째 축복 신학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오, 그들은 다양합니다. 이 세 가지 신학은 두 단계의 구원론, 두 단계의 구원 교리, 칭의 단계 1,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 즉 온전한 성화, 웨슬리안주의, 더 깊은 삶의 만남, 케스웁 신학, 또는 성령 세례, 오순절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듯이, 거룩함의 오순절교도들은 칭의, 온전한 성화, 성령 세례의 세 단계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크마는 그의 책, 은혜로 구원받다(Saved by Grace)의 15~19페이지에서 이를 결론짓습니다. 그는 왜 이런 종류의 구원론을 거부해야 하는가?라고 결론짓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그 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는 것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보는 개종 후 특정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후크마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추가적인 의미를 봅니다. 나는 그가 다른 신자들을 받아들인 상냥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Saved by Grace에서 웨슬리안의 완전 성화에 대해 쓴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만, 그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너무 육적입니다. 그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다음은 그에게서 나온 강한 말입니다. 그는 신학자이고 경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한 강한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은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 또는 세 종류 있다고 시사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러한 구분은 두 가지 잘못되고 해로운 태도의 길을 여는 듯합니다. 자신을 여전히 그리스도인 생활의 하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울함과, 자신을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입니다.

토니 호케마는 신학대학에 가기 전에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기독교 사역을 공부한 후, 아마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가 교의학을 가르치기 전에는, 장로교 관점을 말하는 개혁된 방식이었습니다. 개혁된 분야에서는 장로교의 체계적 체계학을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는 켈빈 신학교에서 교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30년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성화, 우리는 성화 자체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시간적 편의를 위해 성경 서론은 건너뛰고 바로 체계적인 공식화로 뛰어들 것입니다. 성화와 삼위일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기독교 생활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화에 대한 주해적 체계적 신학을 실제로 연구하기 위한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성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의 성화, 우리의 역할 안에서의 성화, 교회 안에서의 성화, 시간 안에서의 성화, 성화와 승리와 투쟁, 성화, 체계적 공식화, 성화와 삼위일체. 사실, 다음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견해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좋은 전환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화와 체계적인 공식화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성화, 2부, 역사적 정찰입니다.